표준형 COOLER ENC-A Series

READING MAKER의 요구를 충분히 실현한 풍부한 LINE-UP

ENC-A 시리즈

강제냉각+내부순환방식으로 더욱더 클린한 내부환경을 제공.



종래쿨러



신제품 쿨러

▶ 갱신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판넬 카트치수 호환성

아피스테의 ENC시리즈는 창업이래 모델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만 변화된 모델에서 호환성에 우려되는것이 판넬 카트치수입니다.
오래된 쿨러의 갱신일 경우에도 최신 쿨러를 그대로 취부함에 있어서도 제어반의 설계변경의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

▶ 추가OPTION이 불필요한 이입취부의 표준대응.

종래의 측면TYPE의 반용 쿨러는 취부를 함에 있어서 가까이에 장해물이 있거나, 제어반이 통로를 대하고 있을 경우, 쿨러의 두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ENC-A시리즈의 측면TYPE(※)은 분해 BODY를 채용한 것이므로 추가OPTION 등이 필요없이 이입취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내환경성능의 오일미스트전용 FAN (※OPTION 설정).

종래의 제품부터 내구성에는 정평이 난 ENC시리즈 입니다만, 특히 오일미스트는 환경에도 뛰어남은 물론, 전용의 내유FAN을 독자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쿨러의 신규설계시의 채용에는 물론, 이설시의 쿨러에도 취부가 가능합니다.





▶ 설계공수를 절감시킨 아이볼트 & 보톰볼트를 이용 취부가 간단.

쿨러 설치시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 공수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중,대형 쿨러는 아이볼트 취부를 대응시켜 운반작업의 효율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취부시는 쿨러하부의 스타드볼트(보톰볼트)를 이용해서 취부를 함에 있어서 공수를 대폭적으로 절감시켰습니다.







▶ 드레인레스 쿨러의 실현, 드레인 증발처리 유니트.

쿨러의 드레인 물의 처리는 무척이나 번거러운 것입니다. 드레인탱크를 비우는것 또한 성가신 성가신 일중의 하나입니다. 배관공사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아피스테는 쿨러하부에 추가설치만으로 드레인 된 물을 증발 기화시켜, 따로 배수처리가 필요 없는 드레인 증발처리 유니트를 새로이 라인 UP했습니다.